

추노계 야담의 소설적 변용

鄭 俊 植*

목 차

- | | |
|---------------------------|-------------------------|
| 1. 서 론 | 3.2 통속화의 지향과 <신계후전> |
| 2.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에 대한 예비적 검토 | 4. 추노계 소설의 선후문제와 상호 관련성 |
| 3. 추노계 야담의 소설적 변용 | 5. 결 론 |
| 3.1 경도된 복수의지와 <금학공전> | |

1. 서 론

推奴系 野談이란 중세사회를 지탱해 온 봉건적 신분제가 크게 동요되던 조선후기 사회의 제반 변화에 편승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망한 노비들을 주인이 직접 나서 추심하는 과정에서 벌이게 되는 노-주의 대립·갈등을 다룬 작품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작품은 『청구야담』·『동야취집』·『기문총화』 등 조선후기에 편찬된 각종 야담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신분제의 동요라는 조선후기의 변화된 상황속에서 진행된 노비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열망 및 그것을 실현해가는 구체적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문학이 이루어낸 현실 반영의 폭과 깊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¹⁾ 뿐만 아니라 추노계 야담 중의 일부 작품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필자는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추노계 야담 전반을 대상으로 삼아 그 서사적

은 고소설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그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다.

본고의 목적은 추노계 야담이 소설화되는 모습에 주목하여, 야담에서 제기된 奴-主 갈등의 실상과 의미가 소설에서는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는지를 검토해 보고,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로 이루어진 <김학공전>·<신계후전>·<살신성인>·<탄금대>의 선후문제와 이들의 상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데 있다. 이같은 작업을 통해 '노비도망과 그 추쇄'라는 조선 후기 당대의 實事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추노계 야담이 소설장르로 이행되면서 나타나게 된 시각의 편차와 의미의 변질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에 대한 예비적 검토

추노계 야담은 조선후기에 도처에서 빈발했던 노비도망과 그 추쇄에 따른 갖가지 문제들을 집약적으로 반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奴-主의 첨예한 대립·갈등을 서사구조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이들 작품은 조선 후기 당대에 발생한 신분갈등 문제를 곧바로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성이 강하고 주제의식이 선명하다.

노비도망 현상은 신분제가 동요되던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18, 19세기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의 대세를 이루면서 일반화된 것으로 파악된다.²⁾ 이처럼 도망하는 노비가 많아지자 主人家에서는 재산권 확보를 위해 이들을 추쇄하는 일을 시급한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도망노비에 대한 주인의 推刷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몰락한 양반이 경제적 궁핍을 타개하기 위한 절박한 목적에서 추노를 나가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호강한 양반이 부유한 노비들의 재산을 노리고 비리추노를 단행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당대의 신분현실을 바라보는 주인과 노비의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2) 정석중,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83), 185-194쪽.

시각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주의 대결 양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³⁾

추노계 야담은 기본적으로 조선후기의 이같은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노-주 갈등의 다양한 국면을 그려내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는 추노계 야담 중 소설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몇몇 작품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다음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추노계 야담 중 <김학공전>등의 추노계 소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

- ① 復讐說(李光庭, 『訥隱集』)
- ② 有竊士推叛奴(安錫徹, 『雷橋別集』)
- ③ 京中士人沈姓者(辛敦復, 『鶴山閑言』)
- ④ 乞父命忠婢完三節(『靑邱野談』)

위에 제시된 작품 중에서 ③과 ④는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시기상으로 볼 때 『청구야담』의 편자가 『학산한언』의 것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①은 그 내용으로 보아 정통 한문 문체로서의 ‘說’이 아니라, 당시 구전되던 한 편의 이야기를 채록한 것이기 때문에 ‘복수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⁵⁾

①②③은 그 내용으로 보아 동일 계통의 이야기로 알려져 오던 것이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채록 정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李光庭(1674-1756), 辛敦復(肅宗 -

3) 조선후기 당대의 이같은 모습에 대해서는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89, 192-198쪽)를 참조.

4) <김학공전>에 대한 논의로는 최운식, 「김학공전」 연구, 『국어국문학』74호(국어국문학회, 1977); 이혜순, 김학공전에 나타난 복수플롯의 수용양상, 『진단학보』45호(진단학회, 1978); 전정옥, 김학공전의 개작양상과 문학사적 의의(한국고소설연구회·제 26차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1994. 8) 등이 있고, <김학공전>의 형성에 관한 논의로는 김정석, 추노담의 소설적 변모와 그 의미, 『반교어문연구』4집(반교어문연구회, 1992)을 들 수 있다.

5) 이명학, 「김씨남정기」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23집(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1989), 35쪽; 이현홍, 신분갈등형 송사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부산한문학』 8집(부산한문학회, 1994), 25쪽.

英祖代), 安錫徹(1718-1774)에 의해 거의 동시에 채록 정착된 것은, 이들이 각각 당시에 구전되던 실사적 이야기⁶⁾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듣고 기록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사건이나 전체적인 구성이 동일하며 세부내용에 있어서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요컨대 ①②③은 18세기 당시 奴-主 갈등에 얽힌 어떤 이야기가 實事에 바탕을 두고⁷⁾ 널리 구전되다가 李光庭, 辛敦復, 安錫徹에 의해 野談으로 기록·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들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 세 작품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단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가난한 주인이 도망노비를 추심하러 가다.
- (나) 반노들이 주인살해 음모를 꾸미다.
- (다) 반노딸의 대리죽음으로 주인은 목숨을 건져 도망하다.
- (라) 주인의 畝官으로 반노일당을 처벌하나 딸의 아비만은 살려준다.
- (마) 조정에서 반노딸의 忠孝烈에 대해 旌門을 내리다.

(가)단락은 가난한 양반과 부유한 노비라는 문제적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주인양반은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가난을 타개할 마지막 방책으로 노비 추심을 나간 것이다. 당시 주인에게 있어 노비는 토지 못지않게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⁸⁾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망한 노비들은 主人家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自作一村을 이루고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①과 ②③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①의 경우 “영남의 士人 중에 호

-
- 6) “但其事 出於傳聞 不知其是與否 而傳之者愈多愈久 而無異口 豈虛也哉”(『訥隱集』 卷6)라는 기록을 참고해 볼 때 당시 이 이야기의 근원이 되었을 법한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 7) 특히 訥隱은 이 자료들과 구성은 좀 다르지만 도망노비를 잡으려다 목숨을 잃을 뻔한 또 다른 이야기를 훨씬 구체적이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鄭孝子傳>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訥隱은 당시 추노에 관한 이야기 중 신원확인이 가능하여 사실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정효자전>이라는 傳의 형태로, 그렇지 못한 것은 「復讐說」이라는 형태로 남기고 있다. 이현홍, 앞의 논문, 176-182쪽.
 - 8) 조선시대의 양반사회에 있어서 奴婢는 土地보다 더욱 중요시되어 凶年·貧窮·喪事 등과 같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야만 放賣되었다(정석중, 『앞의 책』, 202-204쪽).

남으로 推奴나간 자가 있었는데 죽고 돌아오지 않았다”⁹⁾는 상황 설정에 이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재차 도망노비를 찾아나서는 것”¹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추노 자체보다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에 초점이 놓여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②③에는 가난한 양반이 노비를 추심하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반의 아들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로 말미암아 이후로 펼쳐지는 노-주 사이의 대립·갈등이 ①의 경우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아들의 고난 어린 복수여정’이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반면 ②③에는 그런 면이 부각되어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推奴 자체에 얽힌 이야기’라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나)단락에 오면 잠재되어 있던 노-주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되기에 이른다. 주인은 가난을 타개할 궁여지책으로 도망노비를 찾아갔지만, 그들은 이미 예전에 구속받던 노비가 아니었다. 노비들은 主人家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작일촌을 이루어¹¹⁾ 요족히 살면서 때로는 신분까지 모칭하여 良人 또는 兩班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의 출현은 반노들에게 있어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身貢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없애는 물론, 어렵사리 얻은 자신들의 신분적 자유로움을 또한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도망한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양반의 명색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집단을 이루어 요족하게 사는 노비들의 거센 반발에 적절히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꿈쩍없이 죽을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후기의 변모된 사회·경제적 질서에서 도태되어 궁핍화의 길을 걸었던 몰락양반의 한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9) “嶺之士人有推湖南者 沒不還”(『訥隱集』卷 6, 『復讐說』, 425쪽).

10) “兒大痛曰 有父而不知存沒 何以爲子 欲往求之…一日自亡去 乞食於湖南”(『訥隱集』, 위와 같은 곳)

11) 『英祖實錄』이나 『備邊司謄錄』에 근거해 볼 때 당시의 도망노비들은 주로 海島나 邊方의 교통요지를 자기들의 은신처로 삼고 있었는데, 그것은 되도록이면 主人家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아야 잡힐 위험이 없다는 계산이 작용한 결과로 보아진다. (전형택, 『앞의 책』, 189쪽)

生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세 작품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①의 경우 생이 반노딸과 혼인한 후, 그의 장인이 다른 사람과 송사할 일이 있어 집안에 감추어 둔 잠문서를 사위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문서에 죽은 부친의 牌와 跡이 갖추어져 있었다.¹²⁾ 생은 이 사실을 이웃의 士인에게 알렸지만, 반노딸의 집에서는 이미 생의 신분을 알고 그를 몰래 죽여 없애기로 모의¹³⁾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②③의 경우는 추노나간 주인의 신분노출 과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다. 노비들은 모두 주인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찾아온 주인에게 반노들은 “納其美色處女於寢席”¹⁴⁾ 또는 “一奴饒財者 有女名香丹 年十九有姿貌 納之”¹⁵⁾하여 주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미 주인을 죽여 없애기로 모의하였던 것이다.

(다) 단락은 작품 전체를 두고 볼 때 反轉의 계기를 마련하는 부분인면서 이 유형 추노계 야담의 핵심부라 할 만하다. 반노와의 대결에서 일방적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반노딸의 대리 희생으로 살아났다는 사전설정 자체는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아버를 살리기 위한 자식의 희생일 수도 있겠고, 신분 상승을 노린 계획된 행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죄책감으로 인한 번민과 고통으로부터의 자기탈출¹⁶⁾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 부분은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낭만적인 장치로밖에 달리 이해하기 힘들다.

반노딸은 치밀한 계획하에 生의 탈출을 도운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生을 죽이기로 되어있는 날 밤에 반노딸은 생과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를 자리에 눕게 한 뒤, 문밖에서 장정들이 들이닥치면 즉시 밖으로 나가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라고 일러 주었다. 그리고 만약 生이 살아나서 告官하여 반노들을 처벌할 경우 자기 아버지만은 살려줄 것을 약속받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①은

12) “一日 女之父 與人所訟 出家藏雜文書 示生擇其當訟 文券生之父所手書者 牌與跡俱在”(『訥隱集』, 426쪽).

13) “生後往女家 女家族已議陰賊害”(『訥隱集』, 426쪽).

14) 安錫徹, 『嘗橋別集』. 여기서는 李佑成·林旻澤 編, 『李朝漢文短篇集』 中, 376쪽.

15) 辛敦復, 『鶴山閑言』(金起東 編 『韓國文獻說話全集』 8), 426쪽.

16) 李佑成·林旻澤 編, 『李朝漢文短篇集』 中, 90쪽에서는 반노의 딸이 죽음을 택한 이유를 “죄책감으로 인한 번민과 고통으로부터의 자기탈출이요, 더 이상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③에 비해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③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까지 구비되어 있다.¹⁷⁾ 그리고 ①의 경우 반노딸은 이미 주인과 혼인한 처지였기 때문에 그녀의 대리죽음이 남편을 살리기 위한 열행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②③에는 그러한 설정이 없기 때문에 반노딸의 행위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반노딸의 이 행위가 작품의 결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앞서 마련된 노-주 갈등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사실은 (라)와 (마)단락을 검토해 보면 자연히 드러나리라 생각된다.

(라)단락은 앞서 진행되어 온 노-주 갈등이 해결되면서 작품이 종결되는 부분이다. 반노딸의 대리 희생으로 간신히 죽음을 면한 주인은 官의 도움으로 반노일당을 처단하게 되는데, 이는 애초의 추노동기와 매우 어긋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②③의 경우 身貢을 거두어 가난을 타개하겠다는 것이 주인이 추노를 결심한 애초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은 유아무야로 끝나고 의외의 낭만적 장치에 의해 위기를 모면한 주인이 반노들에 대해 준엄한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결말을 삼고 있다. “於是 盡族其奴”(①), “監司啓聞而誅諸賊”(②), “邑倅即報上司 盡戮之”(③) 등의 표현이 바로 이를 말해 준다. ①의 경우 주인의 아들은 추노나가서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재차 추노를 나간 것이기 때문에 결말부의 반노일당에 대한 처벌은 推奴와는 거리가 먼, 개인적 차원의 복수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닌다. 訥隱 李光庭이 ①의 題名을 「復讐說」로 삼은 것도 어디까지나 이 이야기를 ‘아버지를 죽인 노비에 대해 아들이 복수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¹⁸⁾ 이러한 점은 ①이 ②③에 비해 <김학공전>에 더 근접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처럼 이 유형의 추노계 야담은 당대 현실에서 소재를 취해 사실성이 짙

17) ①의 경우 반노딸은 ‘자기가 생을 위해 죽는 대신 자기 아버지만은 살려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생에게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며, 이 문서를 받아 어미에게 맡김으로써 나중에 반노들을 처벌할 때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는 증거로 삼고 있다. 이는 ②③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써 ①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요소로 파악된다.

18) 이현홍, 앞의 논문, 25쪽.

은 갈등구도로 형상화해 놓았지만 위기해결 과정에 나타난 낭만성과 결말부에 나타난 주인의 노비에 대한 일방적이고 준엄한 처벌 등으로 말미암아, 초반부에서 마련된 노-주 갈등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상당정도 퇴색되는 듯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마)단락은 작품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주인을 위해 희생한 반노딸에게 讚辭를 보내면서 그녀의 烈行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짙게 엿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에는 이야기를 기록한 編者의 주관적인 시각이 깊게 배어 있고, 그것이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왜곡시키고 있음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즉 이 유형 작품의 말미에는 한결같이 반노딸의 烈行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데,¹⁹⁾ 이는 야담을 기록 정착시킨 지식계층의 경직된 신분의식이 낳은 결과적 산물이 아닌가 한다. 이같은 추론은 추노계 구전설화가 갖는 결말과의 대비를 통해 그 실상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유형의 작품은 반노딸의 대리희생이라는 비현실적인 反轉 장치를 통해 봉건적 신분질서를 어지럽힌 도망노비들을 준엄하게 징치하거나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에서 갈등을 마무리하고 있다. 위의 작품들이 노-주의 침해한 갈등현실을 비교적 사실감있게 그려내고 있으면서도 위기 해결 내지는 결말처리 방식의 작위성으로 인해 18, 19세기 당시 推奴를 둘러싸고 야기된 문제의 다양한 국면들이 매몰되어 버려감이 없지 않다. 이를 통해 우리는 조선후기의 변동기 사회적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분질서의 동요에 대해서는 이를 역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양반사대부들의 고착화된 관념과 소망적 사고를 읽어낼 수 있다.

19) “遠近聞者 莫不嘉生以童者出家 卒能報其父仇 而益奇 其女以爲三綱集乎一身 蓋以女代其夫死 則烈 而脫父死 則爲孝 濟主於難而復其讐焉 則忠云”(①의 427-428쪽), “以孝女忠婢烈女之備而旌其女”(②의 376쪽), “此女 爲其主遂其忠 爲其夫成其烈 爲其父立其孝 一舉而三綱具矣 本邑立碑旌焉”(③의 427쪽)

3. 추노계 야담의 소설적 변용

3.1. 경도된 복수의지와 <김학공전>

앞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復讐說」은 다른 추노계 야담에 비해 이른 시기에 문헌에 정착된 작품으로서 <김학공전>의 핵심 구조에 가장 근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장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復讐說」과 <김학공전>의 공통점부터 살펴 보면 첫째, 題名에도 나타나 있듯이 「復讐說」은 무엇보다도 반노들에 대한 主人家에서의 복수 문제에 초점을 둔 작품임을 알 수 있다.²⁰⁾ 그런데 이점은 <김학공전>에 이르러 더욱 분명한 모습을 띠고 작품의 곳곳에 나타난다.²¹⁾ 작품 전반에 걸쳐 ‘부모 원수를 어느 때에 갚으리오’라고 반복하는 학공의 자각과 그것의 구체적 실현은 <김학공전>을 복수소설²²⁾로 보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둘째, 작품의 전반에 걸쳐 반노와의 갈등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奴婢主 자신이 아닌 주인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復讐說」과 <김학공전>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다른 작품과 변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이 후로 전개되는 노-주의 갈등이 복수의 의미를 강하게 띠는 것도 초반부의 이같은 상황설정 때문이다.

셋째, 집을 나간 주인이 반노딸과 혼인하는 대목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 제시한 네 작품은 반노딸의 變裝을 통한 주인공출이라는 이른 바 변장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변장모티프를 수용한 추노계

20) 「복수설」의 후반에 제시된 “遠近聞者 莫不嘉生以童者出家 卒能報其父仇”라는 기록을 통해 우리는 이 작품이 ‘아버지를 죽인 叛奴에 대한 아들의 復讐를 그린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1) <김학공전>에서 주인공 학공이 부모의 원수갚음에 대해 뚜렷이 자각하고 있는 모습을 127쪽, 128쪽, 138쪽, 145쪽, 147쪽, 148쪽, 151쪽, 159쪽, 167쪽, 168쪽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밝힌 쪽수는 김기동 편, 『활자본고전소설전집』 2권(아세아문화사, 1976)을 대본으로 한 것이다.

22) 李慈淳, 金鶴公傳에 나타난 복수플롯의 受答樣相, 『麗權學報』 제45호(진단학회, 1978).

야담 중 주인과 반노딸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작품은 「復讐說」뿐이며 나머지 작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주인과 반노딸의 혼사에 대해서는 <김학공전>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復讐說」과 <김학공전>의 유사성은 여기서도 발견된다. 「復讐說」의 경우, 아버지를 찾아나선 아들이 결식하며 다니다가 반노들이 사는 마을에 당도하게 되고, 한 士人の 집에 기식하다가 이웃에 사는 良家の 딸과 혼인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는 다름아닌 반노의 딸이었다. 한편 <김학공전>의 경우, 반노들을 찾아다니던 학공이 유리방랑 끝에 계도라는 섬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서 김동지를 만나 사환노릇을 하다가 그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 집은 반노의 집이었다. 이처럼 주인공이 처음 당도하여 寄食하던 거처를 제외하고는 세부사항에 이르기까지 「復讐說」과 <김학공전>은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

넷째, 주인공의 신분이 노출되는 과정에 대한 묘사가 「復讐說」과 <김학공전>에는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또한 추노계 야담의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復讐說」의 경우, 장인(반노)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것이 있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잡다한 文書들을 꺼내 주인에게 보이며 訟事에 소송되는 것을 고르게 했는데, 그 문서들은 주인의 부친이 自筆한 典籍이었다. 주인이 놀라 이 사실을 처음 기식하던 士人에게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되었던 것이다. <김학공전>의 경우, 학공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준 奴婢·田畵文書를 품속에 간직하고 다녔는데, 혼인한 후 밖에 숨겨놓고 몰래 엿보러 다니다 부인에게 탄로되었으며 장모가 술기운에 못이겨 이웃에게 발설한 것이 원인이 되어 마침내 학공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신분이 탄로되는 세부적인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다른 작품에 비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공통점을 지닌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復讐說」과 <김학공전>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학공전>은 그보다 훨씬 전에 널리 구전되다가 문헌에 기록·정착된 「復讐說」의 영향을 받아 소설로 형성되기에 이른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제 <김학공전>이 「復讐說」을 모태로 삼아 소설로 형성되면서 달라진

면모를 확인할 차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학공전>은 주인공 학공이 복수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만큼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가 '개인적인 복수 행위'에 경도된 감이 없지 않다. 이 점은 「復讐說」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복수의지가 일관되지 않고 후반부에는 반노딸의 열행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復讐說」이 반노들을 정치하는 데 전적으로 官의 힘을 빌고 있는 반면, <김학공전>은 어디까지나 학공이 개인적인 힘을 키워 반노들의 정치에 직접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주인이 官의 도움을 받아 도망노비를 추쇄하는 것은 조선시대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관행이 된 듯²³⁾하기 때문에 이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야담 속에 직접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주인이 과거급제를 통해 힘을 기른 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야담보다 현실성이 약화된 것으로, 야담이 소설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 하겠다.

<김학공전>은 이 외에도 재생모티프를 수용한 결과 학공과 별선(반노딸) 사이에 일어난 혼사장을 후반부에서 극복하게 한다든가, 적강모티프, 지인지감모티프 등을 수용하여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에 따른 나름의 변용을 피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인공의 복수의지와 그 실현이라는 핵심 구조가 침해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공의 여동생(미덕)을 등장시킨 점과 어머니가 명월암에 피신해 있다는 상황을 설정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가족이 재상봉하게 함으로써 가족의식을 크게 고취시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학공이 출장입상한 뒤에 그 지위를 빌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과 함께 영웅소설에서 마련된 구조적 틀을 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요컨대, <김학공전>은 추노계 야담인 「復讐說」을 근원으로 취해 나름대로의 소설적 변용을 피하고 있지만, 작품 초반부에서 제기된 노-주 갈등이

23) 세종·세조·성종·중종실록에 보면 도망노비를 추쇄하려 간 本主가 도망노비나 그 容隱者·및 受托者들의 물리적인 저항을 받아 목숨을 빼앗기거나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빈번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家勢가 미약한 本主에게는 官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추쇄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기도 하였고, 또 실제로 本主의 개별적인 청탁에 의한 官의 지원이 있기도 하였다. 지승중, 조선 전기 主奴 관계와 노비 통제, 『한국 사회구조의 전통과 변화』(한국사회사연구회, 1994), 63-65쪽.

라는 본질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학공의 복수의지가 일관되게 작용하면서 고난어린 그의 복수여정이 전체 구조를 형성하도록 짜놓은 결과 고소설사에서 보기드문 복수플롯을 가진 소설로 발전될 수 있었던 점을 의의로 꼽을 수 있다.²⁴⁾ <김학공전>이 여러차례 개작되면서 독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끈 것은, 이 작품이 노비들의 모반으로 야기된 주인과 노비 사이의 대립·갈등을 주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관되고 끈질긴 복수의지를 가지고 가해자인 노비들을 찾아가서 철저하고 잔인하게 복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와 함께,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異本에서 학공모와 동생 미덕이 반노들을 피해 영월암으로 도망가는 반면, 한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異本의 경우 학공모와 미덕은 반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반노들에 대한 학공의 복수의지도 한층 강화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²⁵⁾ 이는 <김학공전>이 완전한 복수소설로 개작·변질되고 있음을 보여 줌과 동시에, 독자들의 관심 또한 학공의 복수에 모아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

3.2. 통속화의 지향과 <신계후전>

<신계후전>은 <김학공전>과 유사한 구조로 짜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復讐說」과의 관련은 論外로 하고 여기서는 추노계 야담이 소설화되면서 변모된 양상만 살펴보기로 한다. <신계후전>의 특징으로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이질적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그것의

24) 이혜순은 <김학공전>에 나타나는 이같은 복수의 형태가 우리 문학사에서는 매우 이질적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중국문학에서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의 논문) 하지만 필자는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우리의 傳이나 小說에도 유행을 동반한 복수가 개인적 차원에서 끈질기게 전개되는 작품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정의 <정효자전>, 장지연의 『일사유사』에 나오는 <김씨전>·<황씨전>, 고소설 <김씨남정기>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25) <김학공전>의 개작양상과 이본간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田耕旭, 김학공전의 개작양상과 문학사적 의의(한국고소설연구회 제26차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1994. 8. 16)를 참조.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작품이 애초에 제기한 문제의 본말이 전도된 느낌마저 들게 한다는 데 있다.

전반부는 대체로 <김학공전>과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계후와 경애 사이에 발생한 혼사장애와 그 극복의 문제에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는 계모에 의한 정절모해, 뒤주속에 갇히는 수난, 갓난 아들과 분리되는 수난 등을 권경애라는 인물에 집중적으로 附加해 놓은 점과, 혼사장애의 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춘향전>을 방불케 하는 어사출도 대목 등은 가히 후반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노-주 갈등에 따른 문제의 해결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반노들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벗어나 도망했던 계후가 정작 반노들을 징치하는 모습은 작품의 결말 부분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려져 있다.

그런데 <신계후전>이 이처럼 전대의 여러 삽화들을 적절히 배치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는 데는 어느정도 성공한 작품이라 이를 만하다.²⁶⁾ 그 원인은 이 작품이 여러 삽화들의 결합장치를 통해 <김학공전>과는 또다른 측면에서 추노계 야담을 나름대로 變容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공전>이 학공 개인의 집념어린 복수여정을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면, <신계후전>은 계후가 경애와의 혼사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극대화시켜 놓은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추노계 야담이 제기한 노-주 갈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데 <김학공전>에 비해 <신계후전>이 일탈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

<신계후전>은 기본적으로 통속화를 지향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계후의 부모가 구물한 틈을 타서 家奴인 흙탐·흙탈 일당이 橫叛·逃走하는 것

26) <신계후전>처럼 기존의 문학과 관습에서 상용되던 여러 삽화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예는 여성영웅소설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대봉전>·<양주봉전>·<이봉빈전>의 관계가 그렇고, <이학사전>·<홍계월전>도 이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우리 고소설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창작된 작품이 이 외에도 많이 있을 것이라 보이며, 이는 고소설의 구성원리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들은 계후를 방안에 가두어 둔 채 주인집에 불을 지르고는 재산을 모두 탈취하여 海島인 고금도로 달아나 낙향한 재상으로 身分을 冒稱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다. 모친의 현몽지시에 의해 가까스로 도망한 계후는 반노들의 거처를 찾아 三南을 유리결식하며 떠돌다가, 낙향한 재상이 고금도에서 부유하게 산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간다. 그리고는 우연히 주인에게 글솜씨를 인정받아 그집에 머물면서 주인집 딸과 혼인하게 된다. 그곳은 바로 흙탐의 집이었다. 혼인한 후 계후는 몸속에 지니고 다니던 종문서와 족보를 부인에게 맡겨두었는데 부인이 우연히 종문서에서 부친과 삼촌의 이름을 발견하고 흙탐에게 알리자, 계후의 신분을 안 흙탐 일당은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부인의 변장을 통한 대리회생으로 계후는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신계후전> 전반부의 모반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정황, 반노말과 혼인하기까지의 과정, 신분노출 방식, 위기해결 과정 등은 앞서 살핀 <김학공전>과 매우 유사하지만, 이 후로 펼쳐지는 사건은 두 작품이 판이하게 다르다. <신계후전>의 통속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후반부의 주요사건은 반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계후가 권찰방의 집에 寄居하면서 그의 딸인 경애와 겪게 되는 혼사장애 및 그 극복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후반부의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부와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못하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혼사장애의 극복이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다 보니 전반부에서 야기된 노-주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그 해결 또한 계속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추노에 따른 노-주 갈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정도로 본다면 <김학공전>보다 <신계후전>이 훨씬 더 심한 편이다.

<신계후전>의 핵심은 오히려 후반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작품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반부는 계후의 고난을 한층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혼사장애담을 수용하고 있다. 고금도에서 죽을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고 도망쳐 나온 뒤 계후는 우물가에서 자다가 황룽꿈을 꾸고 찾아온 권찰방에게 발견되어 그의 사위가 된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에 경애의 繼母 고씨(27)의 흉계로 계후는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된다. 계모가 경애에게 부정한

누명을 씌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의 예문에 잘 드러나고 있다.

후실 고씨는 계후에 인물풍채 비범함을 알고 후일에 가산증물을 아스면
나에 자식 있는 거시 서름을 당할가하여 마음에 불합하여 장차 모함할
뜻을 두고 계 노복 금낭을 불너할 … 이제 실낭을 보니 일후에 반다시 내
가산을 계 마음대로 할 거시니 내 아들 둘은 개밭에 도토리가 될지라 이제
너는 신랑을 죽여 업새면 천금을 삼사하고 또 네 몸을 속신하여 출터이니
행례하는 날 밤에 칼을 가지고 등대하였다가 신랑이 잠이 들거던 죽이라²⁷⁾

위의 예문을 보면, 계모가 흥계를 꾸미게 된 이면에는 家産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의 상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고씨는 자신과 자기 所生의 장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절실한 생각에서 흥계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장화홍련전>류의 가정소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謀害의 과정에는 이 작품만의 독자성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즉 흥계를 실행하는 인물이 家奴인 금낭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신분상승³⁰⁾과 깊이 연계되어 있는 점, 죽이기로 한 대상이 사위에서 전처자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집, 정절모해를 입은 인물을 죽이는 대신³¹⁾ 뒤주속에

27) 異本에 따라 권경애 계모의 姓이 고씨(대창서원본), 교씨(이화여대 도서관 소장본) 등으로 나타난다.

28) 『구할자본고소설전집』 8(인건대 민족문화연구소 편, 1983), 151쪽. 이하 본문 인용쪽수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29) 이러한 성격은 '계모-전처자식 갈등'을 다룬 <장화홍련전>에서 그 전범을 찾아볼 수 있다.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가 장화를 모해하여 죽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장화자매가 자신의 경제력 확보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원수,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대적 변모(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78-81쪽)를 참조.

30) 奴僕 금낭이 위험을 무릅쓰고 繼母의 흥계를 실행한 것은 일이 성사될 경우 천금을 賞賜하고 贖身시켜 주겠다고 고씨의 約條가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31) <장화홍련전>이나 계모형 설화의 경우 계모가 전처자식을 모해하여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신원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신계후전>에서는 전처자식인 경애가 죽지 않고 뒤주속에 갇히는 고난을 겪다가 암행어사로 나타난 계후에 의해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게 된 원인은 <신계후전>이 혼사장야담의 일부분으로서 정절모해사건을 수용하고 있어서, 장애를 극복하고 완전한 만남을 이루는 결과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간히게 함으로써 고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점, 그 해결이 암행어사출도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이 아주 세밀하고 장황하게 묘사되고 있어서 분량이 많아짐은 물론 문제의 핵심마저 흐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만 전대소설에서 관습화된 여러 모티프들을 적절히 배합하여 흥미위주로 엮어놓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오히려 읽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점들이 <신계후전>의 통속적 성격을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³²⁾

한편, 초반부에서 문제가 된 노-주 갈등의 해결부분은 혼사장애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매우 간략히 처리되고 있다. 역졸들을 앞세우고 고금도로 들어간 계후는 島内の 제족들을 남김없이 잡아들여 문초하고 가담자들을 모두 징계하되 자기를 위해 죽은 남자의 아비만은 살려주게 된다.

지금까지 <김학공전>·<신계후전>을 대상으로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에 따른 變容의 구체적 실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김학공전>이 학공 개인의 집념어린 복수여정을 일관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면, <신계후전>은 계후가 경애와의 혼사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을 극대화시켜 놓은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추노계 야담이 제기한 노-주 갈등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는데, <김학공전>에 비해 <신계후전>이 일탈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는 복수소설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는 여러 삽화들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 통속적 구성으로 짜놓음으로써 나름대로 소설적 변용을 꾀하는 데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추노계 소설의 선후문제와 상호 관련성

추노계 야담을 근원으로 삼아 소설화된 작품으로는 <김학공전>·<신계

32) 이현홍, 앞의 논문(212-214쪽)에서 <신계후전>의 이러한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후전> 외에도 <탄금대>·<살신성인> 등이 있다. 이들 중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반된 주장이 있어왔다. 김기동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계후전>은 <김학공전>을 번안한 작품³³⁾이라 단정한 이래 최운식·조동일이 이 주장을 그대로 수용³⁴⁾하였고, 여기에 대해 강진옥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³⁵⁾ 강진옥은 <신계후전>이 1920년에 대창서원, 1926년에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바 있고, 1915년으로 騰壽年代를 잡을 수 있는 이화여대 소장 필사본이 있는 반면, <김학공전>은 1923년 영창서관에서 발행된 것이 가장 앞서므로 <김학공전>에 비해 <신계후전>이 먼저 지어진 것³⁶⁾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필사연대의 선후를 가지고 작품의 생성시기를 밝힌다는 것은 우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설령 필사연대를 준거로 삼는다 하더라도 <김학공전>이 <신계후전>보다 늦게 지어졌다는 강진옥의 단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김학공전>의 필사본에는 김동옥 소장의 두 異本이 있는데 하나는 총 84면 분량(김동옥 A본)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총 78면의 분량(김동옥 B본)으로 되어 있다. A본과 B본에는 공히 필사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干支가 附記되어 있다. A본의 표제에는 “壬子 二月 十八日”始終라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1912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고, B본의 표제에는 “경술 정월 초사일 시작”이라 적혀있어 이 작품이 1910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³⁷⁾ 위의 두 가지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김학공전>이 <신계후전>보다 앞서 필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나아가 <신계후전>은 <김학공전>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그 후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 작품의 배경으로 볼 때 <김학공전>은 중국과 한국을 무대로 삼고

33)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교학연구사, 1983), 637쪽.

34) 최운식, 『김학공전』 연구, 『국어국문학』 74집(국어국문학회, 1977), 76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권(지식산업사, 1986), 337쪽.

35) 강진옥, 「신계후전」의 예비적 검토, 『이화여대논문집』제9집(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7).

36) 강진옥, 앞의 논문, 173-174쪽.

37) 田耕旭, 앞의 발표요지, 2-3쪽.

있는 이본이 공존하는 데 비해, <신계후전>의 이본은 모두 국내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특히 <신계후전>은 작품의 전체 내용과 별로 상관없는 신립이라는 역사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개화기에 歷史傳記類小說이 활발히 창작되던 시기에 지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둘째, <김학공전>은 주로 복수플롯을 중심으로 단순한 구성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신계후전>은 후반부에 다양한 삽화를 결합시킨 결과 작품이 지향하는 바가 일관되지 않고 혼란한 면을 보인다. 후반부에 결부된 정절모태모티프, 뒤주모티프, 어사출도모티프 등은 전대의 문학, 특히 <춘향전>이나 가정소설 등에서 관습화된 것으로서 <신계후전>의 후반부는 이들 모티프들의 결합으로 장식되어 있다. 삽화결합에 의한 흥미중심의 통속화된 작품구성 방식은 후대의 작품일수록 두드러진다고 볼 때 <신계후전>의 창작시기를 <김학공전>의 그것보다 올려잡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김학공전>에는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생모티프·적강모티프 등이 있으나 <신계후전>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추노계야담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김학공전>이 「復讐說」의 플롯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계후전>은 후반부에 혼사장애담을 과도하게 확장시킨 결과 문제의 본질을 상당정도 벗어나 흥미중심의 통속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 또한 <신계후전>의 후대성을 짐작케 하는 증거라 하겠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발견된 이본의 필사연대로 보거나 작품의 구조로 볼 때 <김학공전>이 <신계후전>보다 앞서 창작되었거나 아니면 비슷한 시기에 두 작품이 창작되었으리라 추정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신계후전>이 <김학공전>보다 앞설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 이 문제와 밀접히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살신성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1906년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帝國新聞에 연재되었는데, 주인이 도망노비를 추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살해된 점, 주인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우연히 도망노비의 딸과 혼인하게 된 점, 도망노비에게 신분이 탄로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도망노비 딸의 대리죽음으로 목숨을 건진 점, 위기를 모면한 아들이 告官하여 반노를 처

별한 점 등이 「復讐說」과 너무도 흡사하다. 소설이라기 보다 야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작품이다. <살신성인>이 「復讐說」을 근원으로 취해 나름대로 각색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³⁸⁾

이처럼 추노계 야담 중 비교적 짜임새를 잘 갖추고 있는 「復讐說」이 소설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김학공전>·<살신성인> 같은 작품이 산생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살신성인>은 추노계 소설 중, ① 창작연대(1906. 10. 22 - 11. 3)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점, ② 다른 작품에 비해 창작연대가 가장 앞서는 점, ③ 「復讐說」의 구조 및 주제에 가장 근접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위의 네 작품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작품은 <김학공전> 혹은 <신계후전>이 아니라 <살신성인>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유사한 작품의 선후문제는 창작연대가 밝혀지지 않는 한 단순히 필사연대의 선후만으로는 가려질 수 없고 작품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네 작품에 대한 면밀한 대조작업과 함께 이들이 추노계 야담과 맺고있는 관련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설령 그렇게 해서 선후문제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느 한 작품이 다른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외에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김학공전>·<신계후전>·<살신성인>·<탄금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쯤으로 보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겠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김학공전>·<신계후전>이 신소설 <탄금대>와 맺고있는 관련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 “<탄금대>는 고전소설 <김학공전>을 源泉作品으로 하여 신소설적 형식, 문체 및 구성으로 변안”³⁹⁾한 작품이라고 최운식이 가설을 제기한 이래 이해순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⁴⁰⁾

38) 개화기의 각종 신문에 연재된 소설 중 조선 후기 야담을 번역·각색한 작품이 적지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살신성인>도 이런 추세 속에서 추노계 야담 중 「復讐說」을 그 근원으로 삼아 형성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39) 최운식, 앞의 논문, 92쪽.

40) 이해순, 앞의 논문, 157쪽.

그러다가 강진옥이 작품구조의 유사성 및 작품의 중심 무대인 '고급도'라는 지명의 일치 등을 들어, <탄금대>는 <김학공전>이 아닌 <신계후전>의 변안이라는 반론을 제기했고,⁴¹⁾ 김순진에 의해 이점은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⁴²⁾

그러나 이 문제도 그렇게 간단히 단정지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김학공전>은 1910년·1912년에 필사된 작품이 있으며, <신계후전>은 1915년에 필사된 것이 가장 앞서는 반면, <탄금대>는 1912년에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필사연대만 가지고는 이들의 선후관계를 종잡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추노와 관련된 구전설화 및 그것의 정착이라 할 수 있는 「復讐說」류의 추노계 야담이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뿐 아니라 <살신성인>의 형성에까지 직접 영향을 주어 네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 같다. 다만 <김학공전>과 <살신성인>, <신계후전>과 <탄금대>가 다른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만은 분명하다.

요컨대, 어떤 작품이 다른 어떤 작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히 내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변장모티프를 수용한 추노계 야담, 그 중에서도 「復讐說」을 근간으로 삼아 소설화된 이들 작품이 각각 어떻게 소설적 변용을 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주의 팽팽한 갈등구조 및 그 주제적 의미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하는 일일 것이다.

5. 결 론

推奴系 野談은 조선후기 18, 19세기 당대의 현실적 주요 관심사였던 주인과 노비 사이의 신분갈등을 다각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앞서 논의된 것을 요약·제시하여 마무리로 삼겠다.

41) 강진옥, 앞의 논문, 174-175쪽.

42) 김순진, 한국 노비설화 연구(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30-131쪽.

1. 추노계 야담 중 변장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는 「復讐說」·「有窮士推叛奴」·「京中士人沈姓者」·「乞父命忠婢完三節」 등은 그 나름의 원리에 따른 독특한 유형성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復讐說」은 '아버지→아들'로 추노 주체가 轉移됨으로 인해 작품의 전반적인 성격이 복수로 치닫고 있어 <김학공전>과 가장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작품구성과 주제적 의미로 볼 때 <김학공전>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작품은 「복수설」이라 단정지을 수 있다. <신계후전> 또한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추노계 야담의 소설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학공전>은 주인공의 경도된 복수의지와 이의 실행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수소설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반면, 상대적으로 노-주 갈등에 내재된 문제의식은 상당히 퇴색되어 있음을 보였다.

<신계후전>은 전대 소설에서 관습화된 여러 삽화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보다 큰 흥미를 가져다 주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후반부에 나타나는 계후와 경애 사이에 발생한 혼사장애의 과정과 그 해결로서의 어사출도 대목은 <춘향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고 흥미있는 짜임새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계후전> 또한 <김학공전>과는 다른 방향에서 소설적 변모를 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살신성인>은 <김학공전>과, <탄금대>는 <신계후전>과 유사한 방향으로 소설화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3. 추노계 소설인 <김학공전>·<신계후전>·<탄금대>·<살신성인>의 선후문제 및 이들이 맺고있는 관련의 실상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으로서는 네 작품 중 필사 혹은 창작연대가 가장 앞서는 작품이 1906년에 발표된 <살신성인>이며, <김학공전>·<탄금대>는 1912년, <신계후전>은 1915년으로 필사연대를 올려잡을 수 있다. 이들 네 작품은 모두 「復讐說」류의 추노계 야담을 근간으로 삼아 소설화된 것인데 <김학공전>과 <살신성인>, <신계후전>과 <탄금대>가 다른 작품과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네 작품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선후 및 영향관계의 확정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復讐說」을 근간으로 삼아 소설화된 이들 네 작품이 각각 어떻게 소설적 변용을 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제적 의미가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깊이있게 해명하는 일이다.